

# ‘리빌딩’ 열풍중인 KIA 한결같은 최형우는 예외

박흥식 감독 대행 “거만하지 않고 언제나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선수”



2008년 타율 2할7푼6리(384타수 106안타) 19홈런 71타점 68득점으로 신인왕에 등극했다.

해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성장했다. 슬한 역경을 딛고 KBO 최초로 FA 100억 시대를 연 선수이기도 하다.

최형우는 올 시즌 136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456타수 137안타) 17홈런 86타점 65득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성적(타율 3할3푼9리(528타수 179안타) 25홈런 103타점 92득점)에 미치지 못하지만 타고투저 현상을 고려하면 제 몫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흥식 감독 대행이 최형우의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늘 한결같은 모습을 높이 샀다. 그는 “최형우는 항상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한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겸손하다.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삼성 코치 시절부터 최형우를 지켜봐왔던 박흥식 감독 대행은 최형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거만하거나 우쭐하지 않는다. 언제나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선수”라는 게 박흥식 감독 대행의 평가.

그는 젊은 선수들을 향한 빼어난 한 마디를 남겼다. “요즘은 조금만 잘하면 마치 스타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 최형우를 보고 배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흥식 KIA 감독 대행은 “선발 라인업이 점점 젊어진다. 최형우 홀로 잘 버티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타선의 리빌딩이 한창인 가운데 베테랑 타자 중

유일하게 타선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다. 최형우의 야구 인생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다. 방출과 재입단의 우여곡절을 겪은 최형우는

## 역시 ‘남달라’...구름 갤러리 몰고 다니는 박성현

21일에는 박성현 위한 생일 축하 파티도



박성현이 22일 강원도 양양 설해원에서 열린 ‘설해원·셀리턴 레전드 매치’ 두 번째 스킨스매치 1번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

비오는 곳엔 날씨에도 박성현(26·솔레이어)의 인기가 사지 않았다.

박성현은 22일 강원도 양양 설해원에서 열린 설해원·셀리턴 레전드 매치 둘째 날 렉시 톱슨(미국), 이민지(호주), 아리아 주타누간(태국)과 함께 스킨스게임을 벌였다.

제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이날 이른 오전부터 비가 내렸지만 갤러리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봤다. 특히 박성현의 인기가 뜨거웠다. 박성현이 티샷을 하기 위해 티잉 그라운드에서 올라서거나 퍼트에 성공할 때마다 갤러리들의 환호가 터졌다.

갤러리 중에는 모자나 가방에 ‘남달라’ 배지를 달고 있는 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남달라’는 박성현의 팬클럽 이름으로, 네이버 팬 카페 기준 회원만 9400명이 넘는 꽤 큰 규모를 자랑한다.

남달라 회원들은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뿐만 아니라 해외 원정 응원도 마다하지 않는데 21일부터 열린 이번 레전드 매치에도 수 백명의 남달라 회원들이 모였다.

남달라 팬클럽의 지역장을 맡고 있는 한 회원은 “정확하게 추산은 어렵지만 21일은 450~500명, 오늘(22일) 약 400명의 팬클럽 회원이 박성현의 경기를 보러왔다”고 밝혔다.

레전드 매치 첫날인 21일에도 남달라 팬클럽의 응원엔 뜨거웠다.

21일에는 박세리(42) 도쿄윌링픽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과 아리카 소렌스탐(스웨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줄리 잉스터(미국) 등 골프전설과 현역 선수들이 2인 1조가 돼 포섬매치를 벌였다.

소렌스탐과 호흡을 맞춘 박성현은 최종합계 2오버파 7타로, 오초아-주타누간 조를 1타 차로 꺾고 포섬매치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21일은 박성현의 26번째 생일이었는데, 남달라 회원들은 “오늘은 박성현 프로님 구배진 날!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깃발을 들고 다녔다.

포섬 매치가 끝난 저녁에는 골프장 근처 한 식당에서 생일파티를 열고 박성현의 생일을 축하했다. 박성현 역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자신을 불러 양양까지 찾아와 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이재영 22점 폭발’ 한국 여자배구, 아르헨 잡고 월드컵 2연승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잡고 2연승을 달렸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일 일본 토야마에서 열린 대회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3-1(25-19 21-25 25-19 25-9)로 승리했다.

한국은 카메룬 전에 이어 2연승에 성공하며 이번 월드컵에서 3승(3패)째를 달성했다. 한국은 23일 네덜란드와 경기를 치른다.

한국에서는 이재영이 23득점, 김희진이 22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1세트 초반 한국은 양효진의 연속 블로킹 등을 앞세워 5-0으로 치고 나갔다. 이후 김희진의 서브

에이스가 나왔고 김연경과 이재영까지 득점을 뽑아내며 15-5까지 격차를 벌렸다. 여유있는 리드에 한국은 김연경에게 휴식을 줬고 한국은 양효진의 속공 득점으로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고전했다. 8-8로 팽팽하던 가운데 한국은 내리 4점을 내주고 힘겹게 경기를 풀어갔다. 한국은 결국 승부를 뒤집지 못하면서 세트스코어 1-1로 을 허용했다.

한국은 3세트에서 강서브로 아르헨티나의 리시브를 흔들었다. 근소하게 앞서가던 한국은 세트 중반부터 이재영의 득점이 잇따라 나오면서 리드를 벌려갔다. 먼저 20점 고지에 오른 한국은 이재영의 득점과 상대의 공격 범실로 3세



트를 따냈다. 다시 리드를 잡은 한국은 4세트에 이다영의 서브 에이스로 열었다. 계속해서 이재영, 김희진, 양효진, 김연경 등이 득점을 올리면서 단숨에 8-1까지 달아났다.

## 손흥민 오프사이드 판정 논란... “속눈썹이 오프사이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토트넘)에게 내려진 오프사이드 판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21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킱퍼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

운드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활약했다.

하지만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19분 세르주 오리에가 추가골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오프사이드를 범한 것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결국 토트넘은 리드를 벌이지 못하고 남은 시간 2골을 허용하며 역

전패를 당했다.

골닷컴은 경기 후 “손흥민의 속눈썹이 오프사이드를 넘었던 건인가”라며 “정지 화면을 보면 손흥민의 어깨가 가장 근접해있던 레스터시티 수비수의 무릎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분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명품하는 행복하군만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